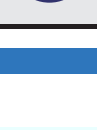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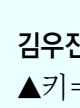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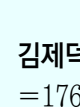


국가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7	3	4	14
	2	중국	6	3	6	15
	3	일본	6	1	2	9
	4	영국	3	2	1	6
	5	대한민국	3	0	3	6
	6	호주	2	1	3	6
	7	ROC	1	4	3	8
	8	이탈리아	1	3	4	8
	9	캐나다	1	2	0	3
	10	프랑스	1	1	1	3

(26일 18시 30분 현재)

태극전사 영광의 얼굴들		
금메달		24일 ▶ 양궁 혼성단체전 (안산, 김제덕)
		25일 ▶ 양궁 여자단체전 (강채영, 장민희, 안산)
		26일 ▶ 양궁 남자단체전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동메달		24일 ▶ 태권도 남자 -58kg (장준)
		24일 ▶ 펜싱 남자 사브르 (김정환)
		25일 ▶ 유도 남자 -66kg (안바를)

오늘의 도쿄	
	태권도 여자 67kg급(오전 10시) 이다빈 남자 80kg 이상급(오전 10시15분) 인교돈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오전 10시)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 이혜인
	유도 여자 63kg급 32강(오전 11시) 한희주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오전 10시43분) 황선우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오후 7시) 황선우

남자양궁 단체 금메달 주인공들	
	오진혁 ▲생년월일=1981년 8월 15일(충남 논산) ▲키=182cm ▲소속=현대제철 ▲주종목=리커브 ▲수상 내역=2020도쿄올림픽 남자단체전 금메달,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 은메달,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 동메달, 2012런던올림픽 남자개인전 금메달
	김우진 ▲생년월일=1992년 6월 20일(충북 옥천) ▲키=180cm ▲소속=청주시청 ▲주종목=리커브 ▲수상 내역=2020도쿄올림픽 남자단체전 금메달, 2021년 아시안컵 혼성단체전 금메달·남자단체전 금메달·개인전 은메달,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남자단체전 은메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단체전 금메달
	김제덕 ▲생년월일=2004년 4월 12일(서울) ▲키=176cm ▲소속=경북일고 ▲주종목=리커브 ▲수상 내역=2020도쿄올림픽 남자단체전 금메달·혼성단체전 금메달, 2021년 아시안컵 개인전 금메달, 2021년 제46회 문체부장관기 시도대항양궁대회 남자고등부 개인전 금메달, 2020년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자고등부 개인전 은메달



한국여자농구, 1승을 부탁해! 여자농구대표팀은 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스페인과 2020도쿄올림픽 예선 라운드 A조 1차전에서 혈전 끝에 69-73으로 패했다. 비록 패했지만 세계랭킹 3위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자체가 '전주원호'의 소득이다. 박지수(가운데)가 아스트우 은드루(오른쪽)와 치열한 골밑 경합을 펼치는 모습. 사이타마(일본) | 신화뉴스

유도 여자 63kg급 한희주와 남자 81kg급 이성호의 각오

기적 같은 도쿄행...메달도 기적처럼!

강산 기자의 도쿄 리포트

한, 오세아니아 쿼터 포기로 합류
“도쿄 금 오랜 꿈...후회없이 될 것”
이, 와일드카드 선수 확진에 행운
“내 나이 서른살, 다 쏟아 붓겠다”

애초 대한민국유도대표팀이 확보한 2020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은 12장이었다. 여자 63kg급과 남자 81kg급에선 쿼터를 따지 못했다.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체급이라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제유도연맹(IJF) 랭킹 포인트 획득에 애를 먹었던 게 사실이다.

여자 63kg급 한희주(24·필룩스)는 6월 열린 2021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를 했다. 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선수들은 1주일만 자가격리를 한 뒤 훈련에 돌입했지만, 그때만 해도 올림픽 출전선수로 분류되지 않았던 그는 2주간 자가격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아쉬움을 삼키던 6월 23일 오세아니아유도연맹이 배분된 올림픽쿼터 2장을 쓰지 않기로 결정돼 극적으로 올림픽행이 결정됐다.

한희주는 3년 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때부터 도쿄올림픽무대를 밟길 간절히 원했다.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이 체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에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외쳤다. 그래서일까, 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그 순간에도 그는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올림픽 출전이 아닌 메달을 꿈꿔왔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 정말 후회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

남자 81kg급 이성호(29·한국마사회)의 올림픽 티켓 획득 과정은 더 극적이었다.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20일 IJF로부터 쿼터 확정 통보를 받았다. 행운이 따랐다. 기존에 와일드카드 자격을 부여받은 선수들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결국 남녀 전 체급을 통틀어 차순위 선수들 중 세계랭킹 점수가 가장 높은 이성호가 출전권을 따냈다. 랭킹포인트 1점

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대목이다.

남자 81kg급에선 사이드 몰라에이(몽골), 사기 무기(이스라엘)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의 은퇴 이후 절대 강자가 없다. 중국 일본이 내세운 나가세 다카노리도 확실하게 메달을 보장하는 카드는 아니다. 초반 고비를 잘 넘으면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 나이 30세에 처음 올림픽 출전의 꿈을 실현한 순간. 스포츠동아와 연락이 닿은 이성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면 은퇴까지 고려했던 상황이라 그 감격의 크기는 엄청났다. “이제 나이도 찼다. 올림픽을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선수생활을 끝낼 수는 없었다. 정말 간절했던 무대인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정말 영광이다. 어렵게 가는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posterboy@donga.com

20분 거리를 80분 거리로...방역 이유로 ‘취재 동선’ 꼬아버린 조직위

강산 기자의 비하인드 도쿄	
이용할 수 없다. 일반 택시 이용도 불가다. TM은 지정된 미디어 숙소를 출발해 환승센터(MTM)를 거쳐 각 경기장으로 이동한다. MTM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메인프레스센터(MPC·도쿄 빅사이트)로 가기 위해서도 MTM을 거쳐야 한다. 25일 유도 남자 66kg급, 여자 52kg급 경기가 열린 도쿄 지요다구 부도칸에서 오후 8시35분 출발하는 TM을 타고 MTM을 거쳐 숙소가 있는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20분. 자가용이라면 약 25분, 지하철이라면 45~50분 거리다. 방역택시를 탈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없다. 운전석 쪽에 칸막이가 설치돼있는 정도다.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수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배포한 리스트에 오른 곳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예약해야 한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최소 3시간 전에는 예약하는 게 안전하다. 문제는 예약한 방역택시가 정차하는 장소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TM 정류장과는 한참 동떨어진 곳에 정차하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이 부족하다. 25일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양궁 여자단체전을 취재한 뒤 부도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예약했는데, TM 정류장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현장의 조직위 관계자는 “택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방역택시를 한번 이용할 때마다 조직위가 지급한 최소 1만 엔짜리 쿠폰(14장)을 사용하

▶1면에서 이어집니다	고, 슛오프(연장전)까지 치러야 했다. 한 발의 실수가 곧 패배로 직결되는 승부였다. 3명이 각기 1발씩 발사한 결과는 28대28 동점. 19-19에서 한국의 3번째 주자 오진혁과 일본의 무토 히로키 모두 9점을 쏘았다. 슛오프 규정상 양팀이 동점을 이루게 되면, 과녁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살이 위치한 팀이 승리한다. 김제덕의 10점짜리 화살은 과녁에 정확하게 들어왔고, 일본의 에이스 후루카와 다카하루의 10점 화살은 9점과 10점 사이에 걸려있었다. 한국이	결승에 오르게 된 배경이다. 박재순 양궁대표팀 총감독은 “(일본의 10점 화살과) 1cm 정도의 차이였다”고 밝혔다. 만행 오진혁은 “동생들이 너무 잘했다. 고지를 넘었으니 점령만 남았다”고 격려했다. 오진혁의 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고지를 넘은 선수들은 그야말로 거침없었다. 결승전 1세트를 59-55로 손쉽게 따냈고, 2세트에선 6할 모두 10점 과녁에 명중하며 60-58로 이겼다. 2세트까지 발사한 12발 중 11발이 10점 과녁에 꽂혔다. 3세트 36-55에	서도 김제덕과 오진혁이 연달아 10점 과녁에 화살을 꽂으며 승부를 마무리했다. 경기 도중 설 새 없이 ‘파이팅’을 외치며 선배들을 독려한 막내 김제덕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했다. ‘큰형님’ 오진혁은 경기 후 “단체전 금메달은 다 같이 고생해서 따낸 메달이라 더 의미가 크다”며 “마지막 화살을 쏠 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들이 파이팅을 외쳐준 덕분에 긴장도 풀렸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	---	---	---